

보도일시	2021. 6. 18.(금) 석간 * 인터넷 2021. 6. 18.(금) 09:00 이후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	과 장 최태호 서기관 최재윤	044-202-7327 044-202-7328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경제·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「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」 발표

-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에게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- 비대면·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.
- 취약계층을 위한 1·2차 고용안전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.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(금), 20차 일자리 위원회*에서 경제·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「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」을 발표했다. ☞ [붙임: 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계획] 참조

□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·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*이 본격화되면서,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**가 증가함에 따라

* '21.5월, [수출] 전년동월대비 45.6% 증가, [소비]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

** '21.1월~5월, 워크넷 구인 46.5% 증가, 워크넷 구직 17.0% 증가 (전년동기대비)

○ 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, 일자리(구인)와 사람(구직)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·취업지원서비스*를 강화하고,

* 구인애로 기업 일자리 수요 선제적 발굴 및 기업 여건·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미비
→ 체계화된 구인·구직 서비스 제공 노력은 다소 부족

○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·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*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**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(PES)의 디지털화 가속화 제안(OECD, 2020)

** 전국민 고용보험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·2차 고용안전망의 기틀은 구축했으나, 이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필요

□ 「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구인·구직 지원 체계화: 맞춤형 채용·취업지원서비스 강화

- 신속·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*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·강화하여, 구인·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·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·제공한다.

*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는 고용유지·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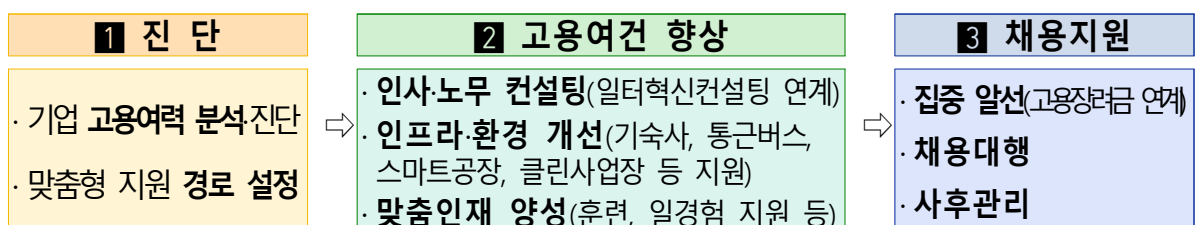
❖ 맞춤형 채용·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



-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,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*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* 구인기업 유형 분류 → ▲쉬운 매칭이 가능한 '온라인알림형'(돌봄, 경비·청소)은 자동알림 우선 제공, ▲'대규모채용형'(대기업 수시채용) 및 '인지도확산형'(강소기업) 위주로 집중 채용지원

- 특히,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고용여건 향상, 맞춤형 인력 양성·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「기업채용지원 패키지」를 신설·제공(21.7월~)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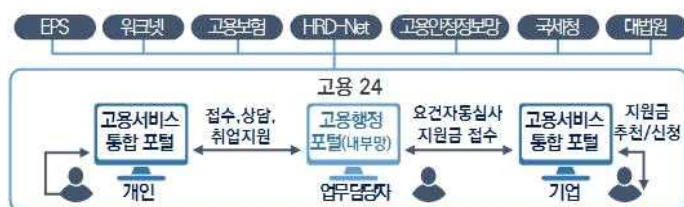


-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,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'준비된 구직자'로 선별,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.
- *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'준비가 필요한 구직자'는 취업 의욕 및 능력 제고를 통해 '준비된 구직자'로 전환하여 지원
- 아울러,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·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, 전략업종을 선정, 「특별 취업지원팀*」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('21.7월~)함으로써 지역·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* ▲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등과 연계해 주요 지원 업종 선정 및 협업 운영
▲업종별 협회, 고용보험 DB 등을 파악한 이직(예정)자 대상으로 '먼저 찾아가는' 서비스 제공

2. 비대면·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

- 코로나19를 거치면서,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·디지털 취업지원 시스템*을 구축하여,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* 집단상담·채용박람회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
- 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('21.~)하고, 비대면·온라인 전용 프로그램('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')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('22.1월~)할 계획이며,
-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,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·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.
- '고용 24'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,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·처리가 가능한 온라인·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('21.~'23.)하고,

❖ 「고용 24」 시스템 구축(안)



- ▶ 모든 민원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한 통합 전산망 구축
- ▶ 각종 지원금 추천·신청 등을 방문 없이 온라인·비대면으로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

- 기업지원(고용장려금)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,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*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.
- *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요건으로 지원요건 정비 및 지급기준 변경 추진

3.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

-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('21.7월~, 특고 적용)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,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·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.
-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*을 마련('21.下)하고, 「특고 취업전담반」 운영('22.~)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,
 - *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, 기관 간 연계·협업 서비스 제공방안 등
- 노무중개·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('21.下~,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)하고,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('22.~)할 계획이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,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·협업*도 확대해 나가며,
 - * ('21) 새알센터 및 지자체 29만명 지원 → ('22)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연계 기관 및 규모 확대
-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·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「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」를 도입·적용('22.~)할 계획이다.
 - * 평가결과를 운영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동 추진

4.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·강화

-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,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,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.
- 고용센터 취업 상담·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, 기업·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*함으로써,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 - * ('21.6월~) 성동광진센터, 강북성북센터 2개소 추가 → ('22.~) 도시지역 과밀한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분할·추가 설치 지속 추진
-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*도 확대할 계획이다.
 - *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소속 상담원 연수교육(每 2년) 의무화('21.下~,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)

5. 코로나19 지속 대응: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

-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.
 -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(180일 → 270일)한다.
 - * ▲ 무급휴직지원금은 '21년 한시 적용, ▲ 유급휴직지원금은 '21.6월부터 시행 중
 -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(예정)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.
 - * 서울고용센터 「여행업 특별 취업지원팀」 시범 운영('21.1.25.~) → 전국 센터별로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「특별 취업지원팀」 설치·운영 확산('21.7월~)
-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·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·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”이라고 말하면서,
 - “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”라고 강조했다.
 - “구인기업,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·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,
 -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계획

【별첨】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재윤 서기관(☎044-202-7328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**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계획**

※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준수, 참석인원은 50명 이내로 최소화

□ 일시 : 2021. 6. 18.(금) / 07:30~9:00

□ 장소 : 한국프레스센터(20층,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)

□ 참석대상 : 부위원장(주재), 위원(당연직 15명*, 위촉직 13명**),
안전 관련부처 장관

* 당연직: 기재·교육·과기·행안·산업·복지·**고용**·여가·중기부 장관
국조실장, 공정위원장, 일자리수석, KDI·노동연·직업능력개발원장

** 위촉직: 한국노총 위원장, 민주노총 위원장,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, 대한상공회의소 회장,
한국경영자총협회장, 중소기업중앙회장,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,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,
벤처기업협회장, 올리브스톤 대표, 대구노인종합복지관장, 양천구청장 (사)커뮤니티와경제 소장

□ 안전

① **【의결1】 「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」**

② **【의결2】 「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」**

③ **【의결3】 「건설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」**

④ **【보고1】 「산단 대개조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**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07:30 ~ 07:32	개회 및 국민의례 (2')	* 사회: 일자리위 부단장
07:32 ~ 07:35	부위원장 모두말씀 (3')	* 모두말씀까지 공개
07:35 ~ 07:50	안전 보고 (15')	* 안전당 각 5분
07:50 ~ 08:45	토론 및 의결 (55')	
08:45 ~ 08:50	부위원장 마무리말씀 (3') 및 폐회 (2')	